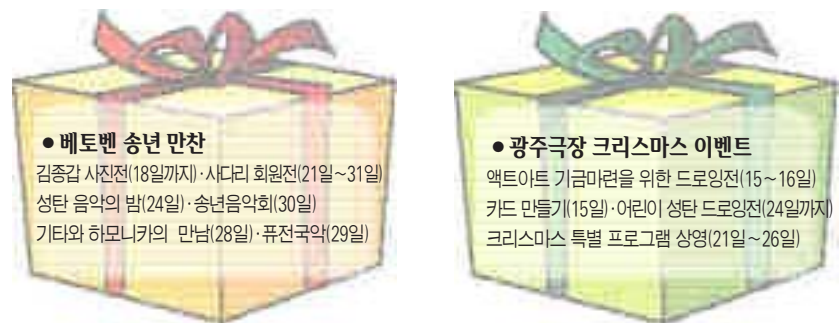


추억의 그 자리, 특별한 송년

광주 문화 명소 '베토벤'·'광주극장' 연말 행사 풍성

25년 세월 동안 묵묵히 자리를 지켜온 클래식 음악 감상실 '베토벤', 70년 넘게 영화팬들을 만나온 '광주극장'. 광주의 오래된 문화 공간 두 곳에서 특별한 송년 기획이 진행된다.

올해 문을 닫을 위기에 처했다 고객의 도움으로 다시 일어난 베토벤에서는 전시회, 공연, 음악 감상 등 다채로운 행사가 열린다. 2008년 광주비엔날레 전시 공간으로도 활용될 예정인 광주극장에서는 전시회를 비롯한 크리스마스 이벤트가 열린다.



● 베토벤 송년 만찬
김중갑 사진전(18일까지)·사티리 회원전(21일~31일)
성탄 음악회(24일)·송년음악회(30일)
기타와 하모니카의 만남(28일)·퓨전국악(29일)

● 광주극장 크리스마스 이벤트
액트아트 기금마련을 위한 드로잉전(15~16일)
카드 만들기(15일)·어린이 성탄 드로잉전(24일까지)
크리스마스 특별 프로그램 상영(21일~26일)

▲ 베토벤서 즐기는 푸짐한 송년 만찬
오는 18일까지는 돌장승을 영글에 담은 김중갑 사진전이 계속되며 21일부터 31일까지 진경우씨 등 7명의 회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사티리 회원전이 열린다. 다양한 클래식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감상회도 마련됐다. 24일과 30일에 열리는 '성탄 음악의 밤'과 '송년음악 음악회'에서는 클래식 마니아인 안철(광주 금호고 교사)씨의 해설로 주제에 맞는 클래식 음악을 감상하며 27일에는 베토벤에서 정기모임을 갖는 '고전음악동우회'가 감상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또 28일에는 기타리스트 서만재씨와 하모니카 연주자 정선식씨가 출연하는 '기타와 하모니카의 만남' 공연이 펼쳐지며 29일에는 대금, 해금, 가야금 연주가 어우러진 '퓨전으로 엮는 우리 가락'이 준비돼 있다. 그밖에 26일에는 강만 씨 등 1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겨울, 강철 무지개의 창가에서'를 주제로 '시낭송의 밤'이 열린다. 2008년인 마지막 날인 31일에는 베토벤 주인공 이정욱씨가 '베토벤을 살리는 사람들의 모임' 회원들을 초청, 사운드의 밤 행사를 진행한다. 티켓 가격 5천원을 내



광주의 오래된 문화공간인 '베토벤'과 '광주극장'에서 다채로운 송년 행사가 열릴 예정이다. 오는 18일까지 베토벤에서 계속되는 김중갑 사진전 모습. /위직림기자 jrwi@kwangju.co.kr

면 따뜻한 차와 떡, 과일 등 간단한 먹거리를 즐길 수 있다. 문의 062-222-8410. ▲ 광주극장에서 크리스마스를 현대미술 프로젝트 그룹 액트아트와 쿠키 만들기, 영화 '해드워' 가발 만들기, 애니메이션 제작, '그림자 아트-그림자 놀이 워크숍'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했던 광주극장은 '성탄절'을 테마로 15~16일 이틀간 행사를 진행한다. 15일에는 스텐실 기법을 이용한 성탄 카드 만들기과 서석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참여한 '어린이 성탄 드로잉전'(24일까지)이 열린다. 또 강현아·김다원·김시영·정기현·김은화씨 등 전국의 미술가 20여명이 참여한 '액트아트 기금마련을 위한 드로잉

전'에서는 전시와 함께 판매도 이뤄지며 광주극장이 추천하는 크리스마스 어린이 영화 상영회도 준비돼 있다. 16일에는 김지섭씨의 사회로 탁자에 올려 놓은 물건에 대해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는 '탁상공론'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카드 만들기 참가자는 광주극장 홈페이지에 신청하면 된다. 한편 광주극장은 오는 21일부터 26일까지 크리스마스 특별 프로그램으로 관객들의 호응을 얻었던 '월스'와 레오 카락 감독의 '나쁜 피', 일본 영화 '안경', 구스 반 산트 감독의 '파라노이드 파크' 등 5편을 상영할 예정이다. 문의 062-224-5858.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시립미술관 2008 올해의 작가 아산 조방원·故 오승윤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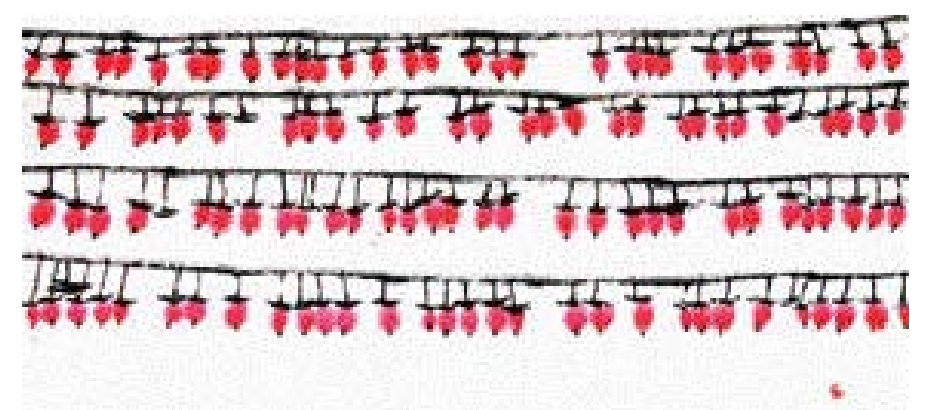
광주시립미술관은 10일 한국화가 '아산(雅山)' 조방원(82)씨와 서양화가 고 오승윤(1940~2006)씨를 2008 광주시립미술관 올해의 작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남동 허건 선생의 제자인 조씨는 남도의 토착적인 정서를 개성있는 수묵으로 승화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작가. 특히 그는 지난 1988년 개인 소장 미술품 6천803점을 전남도에 기증하고, 더불어 자신 소유 토지(4천263평)를 옥과미술관 건립 부지로 기증해 옥과미술관을 건립하는 등 미술문화계 발전과 후진 양성을 위해서도 탁월한 활동을 펼쳤다.



조방원씨 (왼쪽) 오승윤씨 (오른쪽)

한국의 근대미술의 거장이었던 고 오지호(1905~1982) 화백의 차남인 오승윤씨는 '오방정색(五方正色)'을 바탕으로 한 '풍수(風水) 시리즈'를 통해 광주시립미술관에 소개되는 데 기여한 작가.

그는 일본의 수자야마 유, 이탈리아의 파비오, 프랑스의 본느프와 등 중진작가들과 함께 파리 동경 서울 등을 돌며 순회전을 개최하는 등 광주시립미술관의 지평을 넓혔다. 지난 1974년부터 전남대 교수로 재직하며 예술대학을 창설하는 데 산과역을 했다. 한편, 광주시립미술관은 내년 4월께 올해의 작가전을 마련, 이들의 작품세계를 조명할 예정이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박태후 작 '자연속으로'

산내리에서 달을 보다

잠림미술관 기획전 내년 1월12일까지
한평 잠림미술관(관장 김광욱)의 '산내리에서 달을 보다'전이 내년 1월12일까지 열린다. 잠림미술관이 2007송년기획으로 마련한 이번 전시에서는 문인화, 서예, 한국화, 천연염색, 도예 부문에서 활동하고 있는 지역 작가들의 작품이 선보인다. 오건규씨는 순천 송광사의 고즈넉한 풍경

을 담은 '묵련', 조광섭씨는 금강산 팔상담을 스케치한 작품으로 관람객들을 만난다. 박태후씨는 늦가을의 정취를 화폭에 옮긴 '자연속으로'를 출품했고, 박은용씨는 소박한 농가의 삶을 담은 풍속화를 전시한다. 또 도예가 이상목씨의 '남도사발 이야기', 서재경씨의 한글서예 작품, 김은희씨의 천연염색 작품을 볼 수 있다. 문의 061-322-6710.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최종만씨 '영국의 정부시스템 개혁' 출간

순천 출신으로 제1회 광주비엔날레 사무차장을 지낸 최종만(행정자치부 자치경찰제실무추진단장)씨가 영국 국가행정학교(National School of Government)에서 2년간 파견 근무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영국의 정부시스템 개혁(나남)'이라는 제목을 책을 펴냈다. 최씨는 파견 근무 동안 국제관계 업무 지원과 영국의 정부개혁 동향 보고 등의 업무를 담당했다. 책에서는 영국의 정부시스템이 어떻게 구축·개혁되고 있는지 전반적으로 살펴보는 한편, 우리 정부가 개혁 구도를 짤 때 다뤄야 할 과제들을 찾고 있다. 광주시 등 지자체에서 오랫동안 근무했던 최씨는 특히 영국의 중앙정부가 각종 개혁 정책을 지방에서 실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관여·지원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했다.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최씨는 "국가단위의 주도·관리가 필수적인 유형의 업무를 자치 이념만을 내세워 지방에 이양하고 중앙정부는 방관하는 경향을 염려하던 차에, 영국은 이러한 현실을 냉정히 꿰뚫어보고 있었다"고 말했다. 최씨는 영국의 정부시스템을 통치·업무·계획시스템 등으로 나눠 분석하고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영국이 수직·수평적으로 정교하게 수립·연계하고 있는 계획시스템은 우리 개혁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호남 검무

12일 임순자씨 남도소리 상설무대
한진옥류 호남 검무·살풀이춤 등
고(故)한진옥 선생의 호남 검무 맥을 잇고 있는 임순자(70)씨가 광주문화회관이 기획한 남도소리 상설무대 초청으로 공연을 갖는다. 12일 오후 7시 광주문화회관 소극장. 이번 공연엔 한 선생에게서 오랜 가르침을 받았던 임 씨가 선생의 16주기를 기리며 한진옥류 작품만으로 꾸민 무대. 레퍼토리는 한진옥 선생의 대표 작품인 호남검무를 비롯해 승무, 굿거리춤, 살풀이춤, 관랑무 등으로 임씨와 함께 김순자·강지현·이경숙씨 등이 무대에 오른다. 이번 공연에서는 송수권 시인이 지은 '호남검무'를 허갑순씨가 낭송하며 한진옥 선생의 생전 춤사위와 각계 전문가가 말하는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임순자씨 '호남 검무'

금호팍스합창단 창단 10주년 음악회

13일 광주문화회관 소극장
금호팍스 합창단(단장 김운오) 창단 10주년 기념 음악회가 13일 오후 7시30분 광주문화회관 소극장에서 열린다. 일반 여성 합창단에 비해 좀 더 대중과 친숙한 레퍼토리로 공연을 진행하는 금호팍스 합창단은 삼익지휘자 성현웅씨와 김운오씨의

지휘로 열리는 이번 공연에서 '철새는 날아가고', '섬타타타' '황혼의 엘리저' '험한 세상의 다리가 되어' 등 가요, 칸초레, 민요, 율동, 샹송, 샹송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들려준다. 소프라노 김선희씨와 장승일(기타), 위영규(알토 색소폰), 유창국(콘트라 베이스), 김지훈(퍼커션) 등이 찬조출연한다. 문의 062-512-8962.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Movie advertisement for Happy Time featuring Megabox, Enter Cinema, Columbus Cinema, Seniors Cinema, and Mudeung Theater. Includes showtimes and movie titles like 'The August Rush', 'The Day After Tomorrow', and 'The Last Airborne Soldier'.